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組織活用으로 不況克服

現 時局을 總體的 난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다. 視覺的으로 差異는 있겠으나 大體的으로 보아 이와같은 표현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난세를 살아왔고 또 克服해 나왔기 때문이다.

綠生會의 활발한 運用과

分所間 生藥材 유통교류 권장

최근들어 경동시장 상가를 드나드는 사람이 한산하면서 유통량도 현저히감소된 추세이므로 한마디로 不況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단골이 많고 유명한 점포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나 全般的으로不況이라고 느껴진다. 이는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계절탓인지? 아니면 총체적 난국이라서 영향이 미치고있는 것인지? 좀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매스콤에의한다면 하반기에 접어들면 모든 經濟狀況이 호전될 것이라는 展望을 하고 있음으로 우리 生藥業界도 同伴하여 호전될 것으로짐작하고싶다. 이런때일수록우리들의 比較的 잘된 組織을 活用하여 共生共榮하는 길을 찾아 온갖 지혜를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80년대 중반만해도 本會 組織體系는 1백개소 미만으로 地方조직에 있어서 空白이 많았지만 現在는 약 2백개소의 地方組織網이구성되어 있음으로 어만한生藥集散地域에는 종횡으로去來를 할수있도록 여건이造成된 상태이고 各支部 산하에는 虛實을 고사하고綠生會가 組織되어 1~3개月內에는 相互정보交流가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잘만活用한다면 不況克服에 一助가 되리라고 生覺된다. 高度化 産業社會일수록 情報化組織의 必要性이 증대되고 민첩한 창의와 意志없이는 남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낙후자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차제에 組織의 一員이면서 組織을 등한시하는 會員이 있다면再考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본다。大體로 本會中央에등록승인된 각급分事務所는1백97개소(공판장포함)이며 이는 地域別 구석구석에分布되어있고 其지역 生藥材를 多少를 莫論하고 取扱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빈번한 정보교류와 人的유대交流를 확대해나간다면 예상밖의 수확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이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古事가 있듯이 주변의 돌아가는 事情을 잘알고 이에 민첩하게 對處한다면 어떠한 不況도 克服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본다。多年間의 交流와 경험에 의한다면 5對5비율로 태반의 會員은 組織生活의 참된 뜻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장사일변도고 태반은 組織生活에서 얻어지는 참된 이익을 알고들어온다는 것이다。우리協會는 이와같은 組織生活의참意義를 바탕으로 삼고 일하는 會員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20余年의 결실을쌓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향후 70~80%의 참된 組織員이 결속된 힘을 과시할날도 멀지 않았다고 生覺된다。

※다음에 本會 中央共販場 在庫品種을 소개하오니 구색을 갖추기에 必要한물품은 相互연락을 유지하면서 系統出荷 實績증대에기여할 것을 當付합니다。

○在庫品: 갈근, 구기자, 구절초, 식길경, 토당귀, 독활, 맥문동, 박하, 백출, 백복령, 산수유, 익모초, 죽여창출, 일천궁, 치자, 향부자 황기, 기타수종등

(사무국제공)

농림수산부 강조사항

잠특27160-362호 90·5·18일

최근 대한한약협회및 보사부로부터 생약재별로 채취시기를 엄수하여 양질의 약효확보를 위한 최선의관리를 당부하는 건의서를접수하고 본회산하에 품목별 적기수확채취및 출하관리지도에 힘써달라는 지시가있었음으로 산하 각급분사무소장은 이를 유념하시고지역별 지도관리에 철저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과 個人的 이윤만을 追求하는 사람은 社會와 大衆으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이다。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不況이라고 울상들이니 이때일수록 영세적 단체이지만 本會의 조직기간인 各級分事務所와의 종횡的인 去來확대와 其산하綠生會의 활발한 運用과더불어 系統出荷에도 좀더힘써나간다면 주변不況余波를 감소시키면서 서서히 國家的 經濟成長 회복시기를맞이하게 될것으로 예상한다。

(사무국제공)

連載 韓方순례 〈15〉

〈續〉

③기가 허한 경우 얼굴색이 희고 물집이잡힌듯이 말랑말랑하게 부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상태는 기가 허하기 때문이다。

④화(火)가 성한 상태 수척한 얼굴이 희면서광대뼈와 입술이 붉으며 음허하며 화가 성한 상태이고

⑤폐경이 막힌 경우 희백색으로 흰얼굴은 순환경락인 폐경의 흐름이막힌 것을 일러주는 것이다。

⑥허한증 일반적으로 흰색깔은 허한증(虛寒症)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가 모자라고 열이 있는 현상이며 기혈은 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여하튼 얼굴색이 지나치게 흰것은 건강색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5、눈과 얼굴이 검은 때는 신장의 이상을 예고한다

갱년기가 넘어서 정력이 감퇴되면 한방에서는 이 현상을 신허(腎虛)하다고표현하고 있다。즉 신장의기능이 쇠약해졌다는 뜻이다。다시 말하면 신장은 연령에 따라 그 활성도를 가장 민감하게 나타낸다고볼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젊은층에도 이 신장의 쇠약으로 인한 정력이 감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신장의 고동으로 드러나는 얼굴빛을 통한 맑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옛 사람들은 이 신장의 작용을 생명의 원천이라고까지 말했는데식색동야(食色同也)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인간이부여받은 종족번식의 본능인 성욕을 맑끼하는데 삶의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그러므로 이 신장의 강화는 보기보정(補氣補精)의 근본적인 비결일을 알아야 하겠다。

①죽음의 전조 언제나 엷은 검은색을띠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윤기를 잃고 불에 그을린것같이 되면 죽음의 전조(前兆)라고 이를 정도로용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얼굴에 생기가 없이검어질 때에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②어혈증의 경우 그리고 얼굴색이 검으면서 피부가 바짝 마른 것은 어혈증이다。

③검은색은 흉증 검은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양기가 쇠약해진 징조로 크게 흉증(凶症)일부위에 없다。

이상으로 오장의 오색따라 나타나는 중요 병세들을 살펴보았다。다음은 이 오색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의 판별도 중요하므로 여기에 부기하겠다。

①눈이 붉은 것은 열이 오를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이다。

②흰눈(白眼)이 누렇게 변하면 몸도 전체가 누렇게 변하는, 즉 황달의 징조이다。

③열병에다가 신수(腎水)마저 다량 소모해 버리면 눈이 몽롱하고 게슴츠레해진다。

④한병(寒病)인 경우는 눈빛이 오히려 맑게 보인다。

⑤습병인 경우는 눈빛이 혼탁해진다。

⑥건증(乾症)의 병에는 눈도 마른 것 같이 꺼칠해 보인다。

⑦담열이 체내에서 패색 당하면 눈의 동작은 어떤 사물을 지그시 바라보는특징이 나타난다。

⑧간장이 지나치게 성하면 사물을 보는 촛점이흐려지는 사시의 특징이 된다。

⑨음허하면서도 화(火)가 성할때는 눈망울에 붉은 실줄기가 출현한다。

⑩어느 질병이 회복의단계로 들어가는 징조를 나타내는 빛깔은 우선 눈초리가 황백색으로 변하며코끝의 색깔이 맑아지고 이마의 중간 밑부분 즉 산근(山根)이라는 경혈(經穴)이 있는 부위가 윤택하게 빛난다。이는 일종의 생리를 다시 되찾은 상으로 한방에서는 이를 정신환갑(精神黃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이상으로서눈과 얼굴의 색깔로 내장의 질병을 판별해내는 진단법을 살펴보았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全羅北道 支部

지부장 이화익
무주군 사무소장 김종근
장수군 〃 정춘수
김제군 〃 강삼석
임실군 〃 임종근
전주시 〃 정영모
부안군 〃 신용섭
이리시 〃 이상현
군산시 〃 왕길탁
남원시 〃 안성홍
진안군 〃 빈성순
남원군 〃 오기주
순창군 〃 정삼모
완주군 〃 강이상
익산군 〃 조명식
정주시 〃 박종희
정읍군 〃 배성필
정읍군 공판장 손창윤
완주군 〃 전성균
전주시 〃 김상수

1990년5월20일